금융위원회 보도자료

배포 '26.1.28(수) 09:00 보도 '26.1.29(목) 조간

「ASAP*」 출범 후 12주간('25.10.29~'26.1.21) 총 186.5억원의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아냈습니다.

* 보이스피싱 정보공유·분석 AI 플랫폼
ASAP : AI-based anti-phishing Sharing & Analysis Platform

- 12주간 은행권·수사기관의 정보 **14.8만건 공유**
- **2,705개 계좌** 지급정지 등 조치해 **총 186.5억원 피해 방지**
- **통신사·제2금융권·가상자산거래소** 순차적으로 **참여 확대**

「ASAP(보이스피싱 정보공유·분석 AI 플랫폼)」이 '25.10.29일 출범한 이래, 금융권은 동 플랫폼을 활용해 12주('25.10.29~'26.1.21)간 총 14.8만건의 정보를 공유하였고, 이를 통해 총 2,705개 계좌에 대해 지급정지 등 조치를 취하여 186.5억원의 보이스피싱 피해를 방지하였다.

「ASAP」 개요

· **(개요)** 금융·통신·수사 과정에서 파악된 **보이스피싱 의심정보** 등을 참여기관간 **실시간 공유**하고 **AI 패턴 분석 등을 통해 범죄를 효과적으로 차단**하는 플랫폼

· **(출범일)** **'25.10.29일**

· **(참여기관)** 은행, 상호금융, 증권사 등 **全금융권 약 130개 기관**

· **(정보공유)** **9개 유형, 90개 정보항목**

- **은행**(사기이용계좌 정보, 피해자계좌 정보 등 6개 유형), **수사기관**(악성앱 등 피해자 정보 1개 유형), **금융보안원**(관제시스템 통해 확인한 악성앱 정보 등 2개 유형)

[정보공유 : 총 14.8만건(은행 7.9만건, 수사기관 2.0만건, 금융보안원 4.9만건)]

은행, 수사기관 및 금융보안원은 「ASAP」을 통해 **12주간 총 14.8만건**(일평균 1,770건*)의 **정보를 실시간 공유**하였다.

* 기존 FISS(이상금융거래정보 공유시스템) 공유실적(일평균 0.5건) 대비 약 3,540배

은행권은 총 **7.9만건**(전체대비 53.2%)으로 **가장 많은 정보를 공유**하였다. 구체적으로, **▲범죄에 활용된 것으로 확인된 계좌**의 계좌번호·명의인·거래내역 등 정보가 **3.0만건**(20.2%), ▲해킹·의심거래가 발생한 휴대폰 단말기 정보 등 **잠재 피해자 파악에 필요한 정보**가 **2.8만건**(18.9%), ▲피해를 입은 **피해자 계좌정보 1.4만건**(9.4%), ▲의심거래탐지시스템(FDS)을 통해 파악한 **범죄 연루가 의심되는 계좌정보 0.6만건**(4.6%) 등이 공유되었다.

* 그 외, 보이스피싱에 이용된 해외계좌 정보 : 33건 공유

수사기관 정보는 **총 2.0만건**(전체대비 13.5%) 공유되었다. ▲피싱사이트 접속 이력이 있는 잠재 피해자의 연락처 등 **"피싱사이트 피해 의심자 정보"**가 **1.1만건**(7.1%), ▲악성앱을 다운로드하거나 접속한 사람의 연락처 등 **"악성앱 피해 의심자 정보"**가 **1.0만건**(6.5%) 공유되었다.

금융보안원도 자체 관제시스템 등을 통해 파악한 악성앱·피싱사이트 주소, 유포지 IP 등 **"악성앱·피싱 탐지 정보"**를 **4.9만건**(전체대비 33.1%) 공유하였다.

〈 정보 제공기관별 정보공유 실적 〉

구분	정보공유 건수	주요내용
총계	**14.8만건**(100.0%)	-
은행권	7.9만건(53.2%)	· 사기이용계좌(3.0만건), 기타사고의심정보(2.8만건) 등
수사기관	2.0만건(13.5%)	· 피싱사이트(1.1만건), 악성앱(1.0만건) 접속자 정보 등
금융보안원	4.9만건(33.1%)	· 악성앱·피싱사이트 탐지 정보

[정보활용 : 2,705개 계좌 지급정지 등 조치, 186.5억원 피해 방지]

「ASAP」에 참여중인 **전 금융회사**(약 130개)는 동 플랫폼을 통해 **공유받은 정보 등을 바탕**으로 보이스피싱으로 **의심되는 거래나 범죄에 활용되는 계좌 등을 파악**하고 **차단조치**를 취할 수 있다.

전 금융권은 「ASAP」 출범 후 12주간 동 플랫폼을 활용해 **총 2,705개 계좌에 지급정지 등 조치**를 취하여 **총 186.5억원의 보이스피싱 피해를 방지**하였다.

이 중 ▲**은행권**이 **2,194개 계좌**(전체대비 81.1%)·**98.1억원**(전체대비 52.6%) 규모의 피해 방지하여, 「ASAP」을 **가장 적극적으로 활용**해 활발한 보이스피싱 방지 활동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. ▲**증권사**는 **317개 계좌**(11.7%)·**84.4억원**(45.3%) 피해를 방지하였고, ▲카드사(191개 계좌·3.2억원), 상호금융(3개 계좌·0.8억원) 등 제2금융권도 「ASAP」을 활용한 보이스피싱 피해 방지 실적을 차츰 보이고 있는 모습이다.

정보유형별로는 ▲他은행에서 **피해가 발생한 계좌의 계좌정보**를 활용한 지급정지 등이 **1,328건**(49.1%)·**41.0억원**(22.0%)으로 가장 활용도가 높았고, ▲수사기관에서 공유한 **악성앱·피싱사이트**에 접속한 잠재 피해자 정보를 활용한 경우도 **1,250건**(46.2%)·**118.4억원**(63.5%)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. ▲범죄에 활용된 것으로 나타난 **사기이용계좌 관련 정보**를 활용한 경우도 **55건**(2.0%)·**9.8억원**(5.3%)으로 나타났다.

〈 주요 정보유형별 피해예방 실적 〉

구분	피해방지	
	건수	금액
총계	**2,705건**(100.0%)	**186.5억원**(100.0%)
피해 계좌정보(은행)	1,328건(49.1%)	41.0억원(22.0%)
악성앱·피싱사이트 피해 의심 정보(수사기관)	1,250건(46.2%)	118.4억원(63.5%)
사기이용계좌 정보(은행)	55건(2.0%)	9.8억원(5.3%)
기타	72건(2.7%)	17.3억원(9.3%)

[현장 사례]

금융권 현장에서도 「ASAP」을 통한 정보공유가 보이스피싱 범죄의 **신속한 차단과 피해 방지에 효과적인 수단**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평가이다.
금융권 관계자는, "짧은 시간 내 의심거래를 찾아내고 피해자를 설득해야 하는 보이스피싱 대응업무 특성상, 他 금융회사에서 파악한 피해자·범죄자 계좌 관련 정보가 **적시에 신속하게 공유되는 것만으로도 피해 방지에 큰 도움**이 된다."고 하면서, "**그간 유선 연락** 등을 통해 이뤄지던 금융사간 **정보공유가 「ASAP」을 통해 신속히 이뤄지는 것은 매우 큰 진전**"이라고 말했다.

〈 현장 사례❶ 〉

- (○○**은행**) 「ASAP」을 통해 공유받은 **他은행의 사기이용계좌 명의인**이 해당은행(○○은행)에 개설한 계좌에 대해 **FDS를 통해 거래내역을 모니터링**하던 중, **그간 거래가 없던 사람**(피해자)으로부터 **입금 시도를 포착**하였고, **즉시 거래중지** 조치하여 약 2,800만원의 피해 예방
- (□□**은행**) 「ASAP」을 통해 **他은행에서 공유받은 사기이용계좌**에 해당은행(□□은행) 고객이 **과거에 이체했던 내역**을 확인함. 고객에 **경위 확인** 시 처음에는 SNS 등 통해 만난 상대방의 권유에 따른 이체라고 **사기임을 부인**하며 **추가이체 의사도 있다**고 밝혔으나, 담당 직원의 **지속적 설득 끝에 사기임을 인지**하고 **경찰 신고 및 추가 피해 방지**

수사기관을 통한 악성앱·피싱사이트 접속자 정보도 현장에서 보이스피싱 방지에 **큰 도움이 된다는 평가**이다.
금융권 관계자는, "그동안 금융회사들이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던 수사기관의 악성앱·피싱사이트 접속자 정보가 신속하게 공유되면서, **잠재적인 범죄 피해자분들을 찾아내고 빠르게 설득하는 것이 훨씬 수월**해졌다."고 말하며, "통신사·수사기관이 보유한 정보가 보다 본격적으로 공유되면 보이스피싱 범죄 차단·피해 구제가 지금보다도 훨씬 효과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."고 하였다.

〈 현장 사례❷ 〉

- (△△**인터넷은행**) 「ASAP」을 통해 **피싱사이트에 접속한 잠재 피해자 정보**를 확인하고, 해당 고객이 **가상자산 계정으로 500만원 이체 시도**하는 것을 **즉시 포착하여 해당 계좌 거래정지**(임시조치). 피해자 확인 결과 ◇◇**카드 배송문자** 수신 후 사기범이 자산보호 목적으로 입금을 요구했다고 하며, 이후 **경찰 신고**하여 **자금 유출 없이 피해 방지**
- (☆☆**증권**) 「ASAP」을 통해 **악성앱 설치한 잠재 피해자 정보**를 확인하고, 해당 고객이 본인의 연금저축계좌에서 **他금융사 계좌로 약 2천만원 이체 시도**하자 **3시간 지연출금 조치**함. 이후 고객과 연락을 취하여 보이스피싱 정황을 확인(사기범 지시로 피해자 모텔 투숙 중)하였고, **경찰 신고**하면서 **자금 유출 없이 피해 방지**

[향후 계획]

금융위원회는 기 구축된 「ASAP」 플랫폼과 축적된 보이스피싱 관련 정보 등을 바탕으로 금융권의 보이스피싱 탐지·차단이 보다 효과적으로 이뤄지도록 **"AI 고도화" 작업에도 속도**를 낼 방침이다.

▲금융보안원과 금융권(시중은행·인터넷은행·카드) **공동으로** 보이스피싱 의심 정보를 활용한 **연합학습**을 통해 보이스피싱을 효과적으로 탐지하는 **"보이스피싱 탐지 AI 공동모델" 개발**을 추진 중이며, ▲금융보안원이 AI 공동모델에 따른 **거래 위험성을 손쉽게 각 금융회사에 전달**할 수 있도록 **"위협지표 API"도 개발** 중이다. ▲아울러, 금융보안원의 「ASAP」내 축적된 보이스피싱 의심 정보 등을 분석하여 **최신 범죄수법·고위험 고객 관련 데이터를 금융권에 제공**하는 방안도 검토·추진 중이다.

통신·금융·수사기관 간 보이스피싱 관련 정보를 **개인동의 없이도 공유·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**가 마련된 만큼(「통신사기피해환급법」 개정안, 2月 공포, 8月 시행 예정), **제2금융권·통신사 등도 「ASAP」을 통해 관련 정보를 신속히 공유·활용**할 수 있도록 협의를 서두를 예정이다.

통신사·수사기관 등이 「ASAP」에 제공할 정보의 구체적인 내용 등과 관련하여「통신사기피해환급법」 **시행령 입법을 차질 없이 준비**(~8月)하는 한편, 제2금융권(상반기 내), 통신사·수사기관(8月~) 정보가 최대한 신속히 집중·활용될 수 있도록 **정보제공·활용 범위·방식에 대해 각 업권과 밀도 있는 협의**를 진행해 나갈 계획이다.

금융위 관계자는 “범정부 차원에서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해 다각적 노력을 해나가고 있으나, 빠르게 진화·발전하는 범죄 양상을 볼 때 언제라도 **범죄 피해가 확대**될 수 있는 만큼, **긴장감을 가지고 대응해 나가야 하는 시점**”이라고 진단하며, “「ASAP」 도입 초기인 만큼 현재까지 실적을 바탕으로 **부족한 부분은 보완**하고 **AI 개발 등 추가 과제는 최대한 속도감 있게 추진**해 나갈 계획”이라고 언급했다.

아울러 “금융권 **보이스피싱 무과실책임 입법 등 국회 논의를 적극적으로 지원**하는 한편, 금융회사들이 책임성에 상응하는 보이스피싱 **방지 역량을 신속하고 충분하게 갖출 수 있도록** **「ASAP」 고도화**를 포함한 **다양한 정책과제 추진에 최선**을 다할 것”이라고 말했다.

담당 부서	금융위원회 금융안전과	책임자	과 장	김태훈	(02-2100-2975)
		담당자	사무관	유은지	(02-2100-2974)
			사무관	김이재	(02-2100-2975)
협조 부서	금융감독원 금융사기대응단	책임자	국 장	이정만	(02-3145-8150)
		담당자	팀 장	정윤미	(02-3145-8130)
	금융보안원 AI혁신부	책임자	부 장	김성웅	(02-3495-9850)
		담당자	팀 장	이득기	(02-3495-9890)

대한민국 정책브리핑
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